

제주 천연기념물 노거수 생육환경 안전한가

문화재청 제주 5건 등 조사 산천단 곰솔에 뿌리썩음병 성을 팽나무 치료 부위 훼손 도련 굴나무 끝가지 등 고사 강정동 담팔수 지지대 설치



천연기념물(노거수) 상처치료 실태조사와 보호관리방안 연구 보고서'에 실린 2020년 성읍리 팽나무.

성읍리 팽나무군 등 제주의 천연기념물 노거수에 대한 보존 관리와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문화재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늘·인천·경기·강원·제주지역 천연기념물(노거수) 상처치료 실태조사 및 보호관리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지속적인 훼손 위험에 놓여있는 노거수의 생육상태, 상처 발생 원인, 상처치료 실태, 치료 이력, 개선방법과 대책 수립 등을 위해 이뤄졌다. 연구 대상은 5개 지역 노거수 48건으로 제주에서는 '제주 산천단 곰솔군', '제주 성읍리 느티나무 및 팽나무군', '제주 수산리 곰솔', '제주 도련동 굴나무류', '제

주 강정동 담팔수' 등 5건이 들어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8그루가 생육하는 산천단 곰솔군 중 조사 대상 1번목은 주변에 아말리아뿌리썩음병이 발생하고 있어 해당 수목은 물론 곰솔군 보호구역 전체에 대한 방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곰솔군의 장기적인 보존 관리를 위해 상처부위를 비롯한 뿌리 생육상태와 토양 조사 등 정밀조사가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성읍리 느티나무 및 팽나무군의 조사에선 모든 수목의 상처치료 부위에서 갈라짐, 훼손 등이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1번목 느티나무와 2번목 팽나무에서는 식물체의 일부를 썩게 하는 부후균도 발생하면서 기존 상처치료 부위에 대한 점검과 재치료가 요구된다고 했다.

수산리 곰솔은 생육상태가 매우

안정적이었다. 그러나 일부 줄기와 가지 제거 후 상처치료 부위가 수피와 이격이 생겨 상처치료 부위를 개방하거나 재처리해야 한다는 종합의견을 냈다.

6주의 굴나무류가 지정된 도련동 굴나무류는 작은 끝가지 등이 고사하는 곳이 많고, 팽가지가 다수 발생하면서 생육에 저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는 상처치료 내부에서 부후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었다.

강정동 담팔수는 과거 상처치료의 모든 부분이 파손되어 재처리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0월쯤 강풍에 동쪽 원줄기가 부러졌는데 이는 지체부 부근의 부후가 심해져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남아 있는 담팔수도 절벽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언제라도 부러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지대 설치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제주에 자생하는 담팔수에 파이토플라스마가 발생하고 있는데 강정동 담팔수도 이에 대한 방제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선희기자



제주시 한경면 옛 산양초에 조성된 '예술꽃 산양'.

폐교 활용 '예술꽃 산양' 레지던시 본격

작년 파일럿 프로그램 이어 1기 입주 작가 공모 진행 제주는 2명(팀) 이상 선발

제주시 한경면 옛 산양초등학교에 조성된 '예술꽃 산양'이 시각예술 분야 창작자와 기획자를 대상으로 입주 작가를 공모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개관 이후 7명을 대상으로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예술꽃 산양은 이번에 정식으로 1기 입주 작가를 뽑는다고 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운영을 맡고 있는 예술꽃 산양은 전문적인 레지던시 운영을 통해 국내외 예술가 간 네트워크 교류와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창작작품 전시, 예술가와 지역민 연계 프로그램으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복합창작공간을 표방하고 있다. 개인·공동 창작실, 교육실, 숙소 등을 갖췄다.

1기 공모는 도내의 작가를 대상으로 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해

의 작가 입주는 이번에 제외됐다. 레지던시에 선발된 작가는 10개월간 예술꽃 산양에 입주해 창작 활동에 필요한 공간과 프로그램, 전시 참여 등의 기회를 갖는다.

예술꽃 산양 측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새로운 작품을 구상하고 창작하는 예술가들이 제주의 속살이라고 할 수 있는 아름답고 조용한 곳에서 작품 활동에 보다 더 몰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도내의 입주작가들의 교류를 통해서 창작활동의 영역을 넓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모집 인원은 7명(팀)이다. 팀인 경우 2명까지 가능하다. 도내 입주작가는 최소 2명(팀) 이상을 선발하기로 했다. 입주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총 10개월로 정해졌다.

지원서 접수는 3월 1일까지 이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문화예술재단이나 예술꽃 산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합격자 발표는 3월 15일 이뤄질 예정이다. 문의 070-8990-8204.

전선희기자

문화가 쏘지

꿈바당도서관 비대면 강좌

동녘도서관 책 읽어주기

제주꿈바당이린이도서관이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올해 상반기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3월에는 ▷글이 살아나는 문학 놀이 '꼬마 작가의 연필' ▷독서교실 '끄적끄적 마음 한 줄' ▷가족과 함께하는 그림책 놀이 '열려라 그림책' ▷가족과 함께하는 놀이 영어 '벅츠 플레이' ▷환경과 생태를 생각하는 가족 특별 프로그램 '랜선 타고 떠나 오름 산책'이 개설된다. 참가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745-7101.

제주시 구좌읍에 있는 동녘도서관은 유아와 초등학생 저학년층을 대상으로 '2021년 (1차) 책 읽어주기교실' 참가자를 모집한다.

책 읽어주기 교실에서는 김미영(동화구연가) 강사의 지도로 다양한 주제의 책을 읽고 관련 독후활동이 진행된다. 대상은 6~9세 15명으로 3월 7일부터 4월 25일까지 매주 일요일(오후 2시~4시)까지 총 8회 과정으로 운영된다. 이달 23일부터 도서관 홈페이지 '수강신청' 배너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아·산지천갤러리 전시 작가와 만남

이아 전시 연계 체험 행사 산지천갤러리 온라인 대화

제주시 원도심에 들어선 예술공간 이아와 산지천갤러리가 기획전 일정을 연장하며 참여 작가와 만남을 준비했다.

이아는 3월 21일까지 계속되는

'줌 인 이아(Zoom in IAa)' 전시와 연계해 3월 1~15일 매주 월요일에 '일상으로의 초대' 체험 행사를 벌인다.

수강생을 모집해 김현성 작가의 '제주의 나무로 제작한 목기에 옷과 황칠로 마감칠을 해보는 워크숍', 박미라 작가의 '빛으로 그리는 그림', 조기섭 작가의 '리미트 페인팅(Limit painting): 한계점'을 각각

운영한다. 자세한 내용은 이아 홈페이지 참고.

산지천갤러리는 3월 28일까지 이어지는 '섬,섬이 솟다' 전시에 맞춰 온라인으로 '작가와의 대화'를 진행한다.

이달 27일 오후 4시30분부터 갤러리 1층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참여 작가들이 90분 동안 작품에 대한 설명,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한 예술가로서의 역할, 동시대 미술에 대한 이야기 등을 자유롭게 풀어낼

예정이다. 이달 25일까지 구글폼(https://forms.gle/eJJun984CnYKAmkE9)을 통해 관람객들의 질문도 접수한다.

작가와의 대화는 유튜브 '제주문화예술재단 예술공간 채널'로 중계된다. 이 전시에는 고순철, 민병권, 박능생, 배호정, 오민수, 유창훈, 이수목, 이창희, 지희정, 최창훈 작가가 출품했다. 자세한 내용은 산지천갤러리 홈페이지에 올라있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제주 여성 항일운동 뮤지컬에 답는다

강평국·고수선·최정숙 삶 청년극단 레드 '만세' 공연



제주청년극단 '레드'의 뮤지컬 '만세'.

제주 청년 예술가들이 여성 항일운동가를 조명하는 무대를 준비했다. 3·1운동 102주년이 되는 3월 1일 오후 2시 서귀포시 천지연폭포 입구 야외공연장에서 무료로 선보이는 뮤지컬 '만세'다.

사단법인 '더 희망 코리아'가 후

원하는 이 공연은 청춘이데아와 제주청년극단 레드(REDD)가 공동 기획했다. 2018년 창단한 레드는 20대

단원들을 주축으로 꾸려졌다. 그동안 연극, 뮤지컬 등을 꾸준히 무대에 올렸고 이번이 여섯 번째 공연이다. 조만간 제주4·3을 다룬 연극도 계획하고 있다.

이날 초연되는 뮤지컬 '만세'는 시대를 앞서간 제주 여성으로 이 땅의 독립을 위해 3·1운동에 뛰어들었던 강평국·고수선·최정숙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일제강점기 목숨을 걸고 한글의 가치와 역사 등을 교육했던 일, 만세 운동을 준비했던 장면, 독립선언서 선포 과정 등 제주 애국지사 3인의 불꽃 같았던 생애를 담

을 예정이다. 러닝타임 40분의 뮤지컬에 이어 갈라쇼도 펼쳐진다.

레드의 강지훈 단장은 "강평국 열사님의 '나라에 봉사하는 길은 여성도 공부하는 길이다. 공부하다 죽음이 오면 대한독립만세를 불러라'라는 기록을 보고 공연으로 만들게 됐다"고 했다.

고영은·고훈민 단원이 극본을 쓰고 정다혜씨가 연출을 맡았다. 유채연씨 등 19명이 출연한다. 삽입곡은 기존 뮤지컬 음악에 바탕을 두고 노랫말을 바꾸는 방식으로 준비됐다.

전선희기자

時間

문창배 초대전

2021.02.18(목) ~ 04.16(금)

전시오픈 2021.02.18(목) 오후3시

관람시간 안내

평일	Open 11:00	주말	Open 11:00	· 휴관 : 매주 월요일
	Close 18:00	(±,日)	Close 17:00	· 문의 : 064-750-2543

제주시 서사로 154 한라일보 1F Gallery **RED**